

## 독일 노인복지시설의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김 덕 환\*

### I. 서론

#### 1. 연구목적

독일의 중소도시 튜빙엔 근교의 암머부흐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오후 커피시간에 약 90세의 할머니를 60세 가량의 남자가 할머니의 음식 드시는 것을 도와주고 있어서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본인이 물었었다. 이 할머니는 이 음식 시중하는 분의 모친인데 그는 이 마을에 살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두번 찾아와서 이 노인의 수발을 든다고 한다. 집이 먼 거리에 있지 않아 자주 올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가족과 친척들도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이 어르신을 방문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었다. 이 할머니 외에 다른 식탁의 노인들도 친지들이 방문하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젊은 여인이 어린 딸과 함께 어르신과 대화하는 것을 본인은 볼 수 있었다. 노인복지시설이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족 및 친지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기획되어 있었다. 최신식 시설로 산뜻하게 꾸며진 이곳은 종종 양로시설인데 수용시설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은 노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개방시설이었다.

이 암머부흐 노인복지시설은 기독교사회복지 기관인 사마리타재단에 속한다. 지난 2000년 여름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 학부 학생 15명이 독일 튜빙엔의 사마리타 재단에서 2주간 실습을 하였다. 독일 튜빙엔에서의 사회복지실습은 사마리타 재단산하의 웨스터베얼 하우스 중증양로

---

\*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원, 암머부후 종합노인복지센터, 데텐하우센 재가복지센터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3 기관에서의 실습경험이 본 연구에 있어서의 논의 대상이 된다.

에이빙 거프만 (Erving Goffman, 1972)은 전통적으로 폐쇄적인 시설을 “전체적인 시설”(total institution)이라고 묘사하였다. 전체적인 시설의 특징은 지역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시설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직원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거리감이 크며 상호 커다란 적대감과 불신감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엄격한 규칙이 있으며 모든 욕구는 시설을 통하여 조직화된다. 독일은 탈시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비용을 절약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들이 높은 수준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수요자중심의 열린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은 통일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정책을 수정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구 동독지역의 지원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특별세인 동독지원세 (Solidaritaetsbeitrag)가 신설되었으며 국가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부분의 지출은 급증하는 수혜대상자의 욕구에 따를 수 없었다. 많은 수의 동독 시민들이 서독 지역으로 이주해왔으며 이와 함께 소련 및 동구권의 난민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

독일에서의 시설복지는 수준 높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랜 역사를 통하여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은 특히 사민당 집권하의 1970년대에 그 절정에 달했었다. 시설의 다양화, 분산화, 사회화가 개혁의 기본원칙으로 채택되었고 소규모 그룹홈과 자조집단 등 기존시설에의 대안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비판되는 등 지역사회의 욕구가 정책적으로 수렴되고 재정적으로 지원되었다.

1980년대에는 헬mut 콜의 기민당 정권과 함께 사회복지예산의 삭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분적으로 억제되었으나 기존 사업의 운영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과 더불어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사업의 기존틀이 흔들리게 되었다. 1995년 새로운 양로수발보험법 (Pflegeversicherung)의 신설과 함께 이에 대한 가입이 전 국민에게 의무화되었고 새로운 시설 설립이 억제되었으며 시설 직원의 신규 채용이 제한되었다. 민간복지의 책임은 강조되었고 이와 동시에 민간복지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강화되었다.

독일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살펴보면 민간복지가 커다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복지지는 기독교를 포함한 민간복지에서 공적복지로 그 책임이 전가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관과 민이 합리적인 협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혁의 과정에서 민간복지의 활동영역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경시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 속에 민

간복지가 더욱 발전되고 성숙되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은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복지관의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되기보다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에 있는 프로그램을 형식적, 의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노일래, 1991:viii)

독일의 노인복지시설을 탐방하고 그곳의 성숙된 사회복지에의 경험과 통독이후의 최근의 동향이 소개되고 토론된다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복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작은 부분에서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2. 연구방법

독일의 사회복지에는 당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가 잘 정비되고 복지서비스공급에 있어서 유관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의 핵심적인 조건중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독일 사회복지서비스가 선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용에 있지 않고 전문인의 채용과 그들의 전문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지난 실습보고서에서 소개한바있다(김덕환/이남섭, 2000). 이 보고서는 외부인, 즉 실습학생들의 관찰자료에 의존되었었다. 이와 별도로 기관 자체에서 발행한 다양한 일차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구상과 설립배경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고찰하는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독일 사회복지서비스는 한국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제위에서 출발한다. 수준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시설의 전제조건은 무엇이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상호협력하는 가를 독일 사마리타 복지재단 소속 노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볼 것이다. 독일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소개를 통하여 독일에서의 경험이 우리 나라 사회복지에 어떠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목표와 관심을 갖고 접근을 시도하려 한다. 이 글을 전개하는 방법론으로는 실습 기관에서 발행한 다양한 자료를 일차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II. 튜빙엔 지역 사마리타 노인복지시설의 설립구상과 운영의 형태

## 1. 웨스터베얼 하우스 노인복지시설

웨스터베얼 하우스는 양로 및 중증양노시설로서 이곳에서 주로 실습이 이루어졌다. 치매문제가 사회문제로 급증하여 환자들이 이곳에서 함께 치료를 받고 있다. 시설은 치매병동, 중증양로병동 그리고 양로 병동 및 주간보호시설로 나누어져 있으며 또한 치료 및 여가활동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웨스터베얼 하우스는 시내 중심가에서 도보로 약 15 분 떨어져 있는 산비탈의 부유층이 사는 지역으로 앞에는 넥카강이 흐르고 인근에 스포츠 공원과 유치원이 있는 고급 주택가이다. 웨스터베얼 하우스는 1973년에 세워졌는데 주로 튜빙엔의 시민들이 이곳에 오게된다. 이 시설에서부터 시내중심가로 버스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대학도시인 튜빙엔의 사회 및 문화적인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다. 넥카강변에서 산보를 할 수 있고, 인근의 매혹적인 지역에 소풍을 갈 수 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가에서 물건을 살 수 있으며, 시설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화 및 여가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넓은 면적의 건축물과 잘 가꾸어진 정원 및 각 층 마다 식물이 심어져 있는 내부정원 그리고 발코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웨스터베얼하우스에서 발간된 자료 "Samariter Stiftung, Haus am Oesterberg, 200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1) 중증양로시설

간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복합적이고 개인적인 도움 및 전문적이며, 전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원들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증양로시설에는 1인 1실의 독방 및 2인 1실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이 방에는 휠체어 사용 가능한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으며 긴급구조요청 초인종과 라디오, TV 그리고 전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침대 및 탁자는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다. 작은 크기의 개인적인 가구와 사진액자, 화분 등은 시설에 사는 노인들에 의하여 보충된다.

비용에 포함된 기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전문인을 통한 간호
- 3끼의 식사 (필요한 경우 다이어트 및 질병에 따라 요청되는 음식) 및 오후의 커피
- 의복 및 침구의 세척
- 방 청소
- 난방, 전기, 수도 및 쓰레기수거 비용
- 긴급상황에서의 도움

## 2) 낮병동

이곳은 특별히 정신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설치한 병동이다. 가족과 비슷한 공동체에서의 삶과 분명하게 구조화된 일정 그리고 여러 가지의 특별한 활동적인 프로그램들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락함을 증진시킨다.

## 3) 단기보호

노인들이 몇 일간 또는 몇 주간 웨스터베익 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집에서 일시적으로 돌볼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 4) 양로원

이 시설은 가사를 스스로 꾸려 나가기 힘들지만 대체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다. 각 방에는 목욕탕과 화장실이 갖추어져있으며 그리고 긴급구호요청 초인종과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다.

비용에 포함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3끼의 식사 (점심에는 일반식사, 다이어트식사, 질병에 주의하여야 할 식사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아침과 저녁은 뷔페의 형태로서 노인 스스로가 원하는 음식을 고를 수 있다)
- 의류 및 침구의 세척

- 주 일회의 방 청소
- 온방, 전기, 물 및 쓰레기 수거 등의 관리비
- 긴급구호상황에서의 도움
- 일시적인 간호의 필요와 질병시의 개별적인 재활을 위한 도움 (1년에 14일 이내)

### 5) 치료와 재활

치료와 재활은 웨스터베얼 하우스에서 크게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이곳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기억력훈련에서부터 유희, 공작, 체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훈련을 받은 전문인들이 잠재능력을 일깨우고 쇠퇴한 능력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고 있다. 재활체조, 개별적인 작업치료, 언어치료 및 마사지 등 치료요법은 필요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웨스터베얼 하우스에서 실시되고 있다. 제공된 서비스프로그램은 물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다. 누구나 그의 삶을 그의 소망과 욕구에 따라 설계할 수가 있다. 그 밖에도 모든 구성원들이 시설의 운영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6)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활은 시설내의 모든 서비스와 활동 그리고 모임의 기본전제이다. 여기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은 연중 실시되는 축제이다. 그 밖에도 개인적인 경사, 음악회, 강연, 커피숍 방문 그리고 소풍은 공동체의 생활을 증진시킨다. 그 밖에도 중요한 것은 목회와 말씀의 선포인데 여러 교단의 성직자들이 시설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공동체를 위한 방은 모든 시설내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데 식당외에, 예배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방, 간이 부엌, 미용실 그리고 체조실이 있다.

### 7) 입소 상담

사회복지사가 입소 상담 및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시설 의 서비스 가격과 재정마련의 가능성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웨스터베얼 하우스의 서비스 는 양로수발보험법과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 8) 노인복지전문교육

사마리타 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이 재단내에 소속된 튜빙엔 노인복지 전문대학은 웨스터베 일하우스 시설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교 학생들은 실습기간동안 이대학의 기숙사에 거주하였으며 이곳 학생들과 공식적인 대화의 시간도 가졌었다. 튜빙엔에 있는 노인복지전문대학은 매년 25명씩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10학년) 또는 고등학교 (13학년)를 졸업하여야 하며 최소한 일년 이상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사전 실습 또는 봉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3년이고 실습과 이론이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팀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의 협조체제가 팀웍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갈등이 있게되면 서로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서로 구별되면서 또한 연계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학생들은 여러 전문가 및 환자의 가족들과 협의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배운다.(Heidi Sieger, 1999:29)

노인복지시설내에 학교가 설립되어있는데, 이것이 우리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마치 의과대학과 병원이 함께 있는 것과 같다. 이론과 실체가 연결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과과정상 실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 암머부흐 종합노인복지센터

웨스터베일 하우스 산하의 암머부흐에는 수용시설외에 노인들의 장단기 보호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지역사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마을사람들의 여가시설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이 시설의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욕구를 지역정치인들이 수용하고 그들이 노인복지시설 설립의 주체가 되었다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 (Samariter Stiftung, Ammerbuch, Altenpflegeheim, 2000)

1988년 시장선거에서 후고 디터는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가능한 한 그들이 살아왔던 지역에 살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 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찬성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의 규정에 의하면 중증양로시설 (Pflegeheim) 설립의 최소규모를 60병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병상은 이 마을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역에 맞는 작은 규모의 시설을 세우려할 때 그의 경제

성 때문에 운영자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려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루드빅부엀 (Ludwigburg)시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중증양로시설의 설치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양로시설 설립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그 시에서는 28개의 병상의 중증양로원도 설립허가하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제가 되는 것은 이 시설을 큰 시설이 함께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암머부흐 시에서는 적합한 시설 운영자를 찾았는데 그들은 사마리타 재단이 튜빙엔에서 웨스터베엀 하우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이 재단이 이 양로원을 함께 운영하기를 요청하였다. 사마리타 재단은 뷔르템베르크에서 20여개의 시설을 갖추고 약 3000명의 노인, 장애인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돌보고 있다. 하지만 사마리타 재단은 처음에는 이 작은 중증양로시설을 함께 운영하기를 거부하였다. 지역 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갖고 암머부흐 행정청과 암머부흐에 있는 모든 목사들의 서명을 첨부하여 사마리타 재단에 이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다시금 요청하였는데 그들은 이 제안을 수용하였다. 이와같이 암머부흐 프로젝트를 통하여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시도였다. 건축도 8명의 건축가의 경합을 거쳐서 최싹 설계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합 과정에서 건축 설계도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어 그들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재정지원은 바덴뷔르템베엀 주 정부와 튜빙엔 지역정부로부터 받았다.

튜빙엔 주공에서는 바로 이 시설 옆에 10가구의 아파트 주택을 설립하였는데 입주자들은 이 시설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게 설계되었다. 이 10개의 아파트는 규모가 다르며 이중 6개의 아파트는 월세로 살 수 있으며 4개는 자가 아파트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입주조건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하였다.

### 1) 10개의 주택을 통한 서비스구상

노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센터에서 필요시 식사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센터와 초인종으로 연결이 되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노인들은 곧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거리상의 장점을 이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최후까지 그 자신의 집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다.

### 2) 젊은이와 노인의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안과 밖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이렇처럼 나이든 어르신들과 젊은이의



만남의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시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의 활동에 참여하여 제한적인 그들의 삶의 반경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다. 만남의 장소로는 일차적으로 거대한 식당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많은 봉사자의 열정을 볼 수 있다. 만남의 장소에는 자유 작업실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공작과 수선을 하고 그리고 모든 종류의 활동들이 허용되고 있다. 이 만남의 장소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식사를 손수 조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대신할 수가 있다.

### 3) 7병상의 주간 보호 시설

이를 통해서 가족들이 자신의 집에서 직접 노인을 돌보고 있으나 그들이 주간에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었다. 직장에서 퇴근 후에는 가족들이 노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거나 시설에서 그분들을 모셔다 주고 있다.

### 4) 4개 병상의 단기보호시설과 24개 병상의 보호시설

전문인들이 간호해야만 하게될 정도로 돌보아야 할 필요성이 커다랄 경우에는 중증양로원에 갈 수밖에 없다. 암머부호지역 사람들은 최소한 중증 양로시설이 암머부호에 한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여기서 노인들이 그분들의 친숙한 환경속에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과 친지가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 위함이다. 이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점심제공은 튜빙엔에 있는 웨스터베얼 하우스에서 맡아하기로 되어 있다.

### 5)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방

재가복지서비스가 한 곳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장점은 여러 운영의 주체들이 관계망을 형성하여 서로 협조할 수 있고 경제적인 비용부담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 운영주체들이 모이게 되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시설에서 다른 주택들과 연결된 구상은 부분적인 단계별 간호에서부터 완전한 전반적인 간호를 가능케 하고 있다.

암마부호 프로젝트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시설 외에 이 시설이 지역사회와 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원과 지역의 대표자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볼 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시설이 마을의 중심가에 세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노인복지 시설이 지역의 외곽지에 세워지는 우리의 현실과는 비교가 된다.

### 3. 데텐하우센 재가복지센터

데텐하우센 재가복지센터는 튜빙겐에서 약 10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이 시설은 사마리타 재단의 웨스터베엥 하우스에서 관리하고 있다.

데텐하우센의 재가복지센터에서 발행한 홍보 자료 "Altenzentrum 'Haus im Park' Dettenhausen, Zahlen, Daten, Konzeption. 2000"에 의하면 이 프로젝트의 설립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데텐하우센의 헬물 베홀레 (Helmuth Baechle) 시장과 개신교의 알프레드 합 (Alfred Happ) 목사는 오랫동안 노인과 질병을 가진 사람과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이와 연관된 주된 관심사는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 지역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었다. 이 구상은 지역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이러한 구상은 당시 1977년 슈트베스트 방송 (Suedwest Rundfunk)이 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모델을 소개하며 이중 우수프로젝트를 선발하여 시상하는 방송 홍보프로그램의 일부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데텐하우센 시의회는 이 재가복지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10만 마르크를 회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다른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기부금이 계속 따랐다.

이제 전임 시장이 된 헬물 베홀레와 알프레드 합 목사 그리고 후임시장인 도어(Doer)는 이 구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관계 기관과 회사들과 접촉을 갖고 법적인 규정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려 노력하였다. 1979년 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기는 어려웠는데 그것은 비슷한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기서 노인복지와 간호문제를 두 가지 기본축으로 하여 통합적인 모색을 시도하였다. 여기에 커다란 도움을 준 사람이 건축기사 크뤼세인데 이 분은 건축문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함부르크의 케어버 재단에서 이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 기획과정에 있어서 자문을 하였고 또한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데텐하우센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① 설립동기

2차대전 후에 가족의 구조가 많이 변했다. 데텐하우센은 대도시인 슈트가르트의 교통이 빈번한 지역의 가장자리 부분에 속하는데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돌보는 대가족 제도란,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경쟁 사회에 있어서 노인 세대들은 점점 더 주변으로 밀리게 되었다. 노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은퇴하고 혼자 있는 경우 자신의 집에서 충분히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노인시설이나 사회복지청에서 배분한 양로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양로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자랐던 생활환경에서 떠나야만 하게 된다. 그들이 새로운 삶의 변화에 대해서 공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익명성이 보장된 도시에서 사는 사람보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타격이 더 크다. 일반적으로 양로시설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시설이 흔히 규정을 앞세우고 개별적인 지원보다 전체적인 원칙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적인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피동적이 되기 쉽다. 친척과 가족들도 시간이 갈수록 방문하는 것이 드물어지며, 이 경우 또한 대부분 부활절이나 생일, 크리스마스 등 1년에 몇 번으로 제한되어 있다. 양로원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지역에서의 함께 생활하는 삶과 교회 또는 다른 친목 기관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기가 어렵다. 양로원에서의 자율성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비 자율적이 되고 자기 욕구를 관찰하기 점점 더 어렵게 된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자존심은 없어지게 된다. 이들은 장기적인 항수병에 시달리게 되며 적지 않은 경우의 정신이상으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한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다는 것은 사회부조법에 의한 사회보장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담이 된다. 양로원에서 한 병상은 일반적으로 1800마르크이고 중증 노인복지시설에서는 2600마르크이다. 대부분 연금은 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다. 때문에 사회부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활보호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개인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도록 요청되는데, 예를 들면 적금의 해약이나 자기가 살고있는 자가의 집의 처분이다. 이런 상황은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따라서 사회 정책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요청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는 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청과 국민연금재단 또한 노인들을 위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따라서 열린 노인복지 시스템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②재가복지센터의 설립 목표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며 지역의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자기의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 지역에서의 통계를 보면 노인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령화로 인하여 대폭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데텐하우센 지역에서의 60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12%에 달한다. 중기적인 인구통계학적인 예측을 보면 노인의 비율이 앞으로 몇 년 내에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 노인들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와 친근감 있는 삶의 터전에서의 분리를 예방하고 희망과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도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인 스스로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간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개인 스스로의 책임을 주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며 인간을 간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과 수행에 있어서 노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자에 의한 도움은 이것이 공적이던 사적이던 단지 보충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움이 요청되었을 때에만 개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움은 노인들의 활동성이 오래 보존되도록 지원하는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서비스와 연관된다. 장애와 질병을 가진 노인들이 이를 운명으로 여기고 참고 견디게 하여서 만든 안 된다. 재활의 모든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하여 노인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계획된 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지역내의 사회단체, 국민대학, 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교회 등과의 교류증진을 도와야 한다. 필요한 도움은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기의 친숙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열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데텐하우센의 모델은 노인들이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간호를 받는 등 필요한 서비스가 가능한 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상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노인들은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노인복지시설의 열린 체계와 연관하여 여러 가지 관점을 언급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 환경, 전문인의 활용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열린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III. 튜빙엔 지역 사마리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특징

## 1.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설

“알츠하이머 클라이언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일반 가정집처럼 독특한 집 주인의 분위기와 포근함을 느꼈다. 클라이언트의 침실에는 여러 종류의 기차 모형과 사진, 음악책이 손때 묻은 원목 가구에 배치되어 있고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으로 방안이 환했다. 클라이언트는 우리 나라 시설의 노인처럼 단체복을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편안하게 즐겨 입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담요를 덮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표정은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모습과도 같았다.”

웨스터베일 하우스의 치매 병동에서 실습한 최미선학생은 시설의 구조와 건물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녀가 실습보고서 (2000:30-32)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알츠하이머 질환은 기억력이 쇠퇴하여 최근의 기억을 대부분 잃어버린 것이 특징인데 잘 아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까지 되며 나중에는 방향 감각이 없어 길까지 헤매인다고 한다. “날짜를 잊어버려 궁금해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복도에는 날씨, 날짜, 계절은 표시해주는 큰 판이 있어 시력이 나쁜 사람도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해놓았다. 복도에는 화분과 테이블, 의자가 있고 건물 구조가 □형인 까닭은 클라이언트가 방향 감각이 없어 길을 헤메이다가도 원 위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 이 곳의 복도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넓고 피곤하면 쉴 수 있도록 복도 중간 중간에 의자와 테이블을 놓았다. 복도는 이동하는 통로이지만 노인이 조용히 책을 보거나 낮잠을 자기도 하는 여가 공간, 영양을 섭취하는 식사 공간, 활동적으로 돌아다닐 때는 훌륭한 실내 산책로이다. 또한 사교 공간(복도), 사생활 공간(침실)을 분리해 놓아 프라이버시에 침해받지 않고 이웃과 사귄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입장으로 생각해 시설을 디자인하다 보니 복도의 활용을 유용하게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억 상실증 노인들이 비활동적이어서 활동적이 되는데 이 때 시설 안에 있는 노인들은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시도한다. 그 공간으로 좋은 것은 옥상 정원이다. 알츠하이머 층에는 옥상 정원이 3개나 있었는데 3곳이 분위기와 환경이 달랐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정원은 마룻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어 낙상 방지를 위한 일반 바닥으로 되어 있는 복도와 구별해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었다. 같은 시설 안에서 공간에 따라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어 이색적이었다. 옥상 정원은 실내와 실외를 유리창으로 구별해 놓았으며 그 안에서는 앉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있고 천장은 채광을 조절할 수 있어 바깥 날씨가 추위도 따뜻하게 햇볕을 쬐기에 좋은 장소이다. 바깥에서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정원 한 쪽으로는 산과 연결된 산책로가 있어 자연과 접할 수 있다. 둘러싼 담은 허리와 가슴 사이에 닿을 정도이고 담 앞쪽과

곳곳에 화분과 식물을 놓았다. 산 속에서 지저귀고 있는 새 소리를 듣고 햇볕을 쬐며 신선한 바람을 마실 수 있는 이 시설은 자연 친화적이고 클라이언트가 안정을 취하기에는 좋은 공간이다.”

노실금은 보통 병의 후반 과정에 발생한다. 목욕 등을 통해 피부 관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기관은 직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의 기계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침대의 스위치만 누르면 각도와 높낮이가 조절되어 클라이언트를 눕히거나 일으킬 때에 직원이 많은 힘을 쓰지 않고도 일을 빨리 할 수 있다. 방안 화장실에는 어른용 기저귀와 목욕 용품이 충분하게 있고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손잡이와 같은 보조 장치를 설치해 놓았다. 이 기관의 특징은 무조건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해 일상 생활을 도와주고 있었다.” 시설 안의 노인들은 행복해 보였고 여가 생활을 자유롭게 아무런 방해도 없이 보내는 모습을 보고 질 좋은 서비스만큼 시설도 중요하다는 것을 최미선학생은 강조하였다. 이러한 수준 높은 시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지들도 기꺼이 방문하는 등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촉진하리라 생각한다.

## 2.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

“치료사가 어르신을 대하는 모습을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감동을 받았다.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도 부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상쓰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친절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기관의 서비스 체계도 세심한 배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영입 과정에서 작성되는 신상 기록서에는 어르신이 침대에서 일어날 때 도움이 필요한 지, 계단을 오를 때 도움이 필요한 지 등의 목록을 체크하여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높은 수준의 독일노인복지서비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물리치료, 스포츠 치료, 놀이치료, 공작, 음악치료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여기서 전문적인 치료사가 활동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러움을 갖게 했다. 웨스터베일 하우스의 주인은 기관장도, 사회복지사도 그 외에 어떤 직원도 아닌 120여 명 남짓의 어르신 모두였다. 시설의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들에 대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김호덕, 실습 보고 자료 2000:65-66)

이은영, 조한순, 최미선은 그들의 실습 기간 중 치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치매병동인 3층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층에 있는 노인들과 같이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늘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과 1주일만 지내도 지루함을 느낄 텐데 그들과 함께

몇 달 몇 년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함을 느낄까? 특히 치매 어르신은 밖에 나가면 잘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1층 작은 예배실에 모여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연극도 보면서 바깥 바람도 쐬고 산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곳에서 축제가 있을 경우 기꺼이 노인들을 초청한다고 한다.” (2000:28) 모든 프로그램에는 클라이언트들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가 실습한 또다른 실습지인 암머부흐 노인복지 시설은 재가복지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의 통로를 통하여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지역 노인들 뿐만 아니라, 중년부인들이 그들의 회의장소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린 아동들을 함께 동반하기도 한다.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방들이 제공되는데 이를 통하여 노인과 어린이와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주민외에도 종교인들 즉, 개신교 목사와 카톨릭 신부와 교회사회복지사 그리고 교인들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이들을 돌보고 있다. 개신교의 재단인 사마리아법인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종교인들에게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 시설에는 힌두교를 신봉하는 인도인을 노인복지사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 사회가 열린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IV. 논의와 전망

기관의 홍보자료에는 시설의 설립구상과 설립의 역사에 대하여 명기하고 있고 그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 시설들은 클라이언트 중심 시설로 시설설립의 기획과정에서 부터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강조되었고 실제로 쾌적한 환경과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열린 시설이었다.

이러한 통합적인 서비스의 모델로는 우리 나라에서 본 연구자가 방문한 곳으로 1998년 6월에 설립된 비교적 최신식 노인종합복지시설인 장성의 “프란치스꼬의 집”을 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양로원, 외래의료서비스 및 재가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시설 “프란치스꼬의 집” 시설에서 발행한 자체 소식지 참조)

문제는 전문인이 극소수만 채용되어 있고 대부분의 복지사업을 자원봉사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이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시설이 생김으로 인하여 버스노선이 생기고 우체국 등 공공시설과 마을이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혐오시설이라기보다 시설이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심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본인이 탐방하였던 다른 최신 시설인 순천의 은빛마을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시설은 세운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비교적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종류가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복지서비스가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역사회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요청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주민 스스로가 양로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행정 당국이 이를 수용하고 운영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우리에게는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의 지역주민과 지역정치인의 핵심관심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독일의 양로시설은 무료와 유료의 차이가 없었다. 모든 시설이 유료인데 이를 보험에서 지불하고 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본인이 지불하거나 아니면 생활부조자금에서 지불된다. 돈이 없어 노인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은 잘 지어져야 되겠다는 평범한 생각을 이번 실습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를 갖게되었다. 독일에서 특이한 것은 시설들이 환경친화적이었으며, 많은 나무를 내부에 사용하고 있었다.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기 보다는 초등학교라고 표현하여야 할 정도로 많은 방과 기구들이 있었고 또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되고 있었다. 우리가 체험한 것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독일의 사회복지의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대폭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클라이언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맞는 개별적인 서비스가 자원봉사자가 아닌 다양한 전문인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작은 한 사례가 이를 말하여 준다. 노인들이 머리를 빗고 얼굴에 화장을 하며 정장까지 하고 식사시간과 커피타임에 식당으로 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정장을 하고 식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가족과 친지가 흔히 식사 또는 커피시간에 맞추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항상 이들을 마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방문객이 없다면 그들은 그렇게 단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습지도교수로서 함께 동행하였던 이남섭은 독일 탐방인상기를 다음과 같이 함축하여 소개하고 있다. "독일 사회복지의 선진성은 건물의 현대성과 첨단설비에만 있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농촌과 도시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의 모습이었다. 마을의 중심부에 세워진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실 말이 노인복지센터이지 우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치매병원 내지 노인 장애인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노인복지 시설을 협오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2001:3)

실습에 참여했던 변선영 학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2주간의 실습기간 동안 나에게 는 한가지 풀리지 않던 과제가 풀렸다. 그것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사회복지 개념 정립이 잘 되지 않던 나에게 독일의 사회복지를 몸으로 느끼며 과연 이런 것이 사회복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내가 느낀 사회복지는 바로 이것이다. ‘사회복지는 학문이 아니라 생활이다.’ 다른 이들은 이미 알고 있을 지도 모르고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나를 뭐라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에는 아주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사회복지가 모든 이들의 생활이 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2000:70)

## 참고문헌

- 김덕환, 이남섭. 2000. “독일민간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사례. 디아코니아 노인복지기관 현장 실습을 중심으로”. 신학과 사회 제 14집. 한일장신대학교. pp.315-335.
- 노인종합복지시설 “프란치스코의 집” 시설에서 발행한 자체 소식지. 발행연도 없음.
- 노일래. 1991. “사회복지관의 입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이남섭. “독일의 기독교사회복지기관방문 인상기”.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발행 월간홍보신문 “생명을 일구는 노동과 삶의 나눔”지 (2001년 1월 28일 발행), p.3.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000. 독일실습 및 유럽탐방보고자료.
- Goffman, Erving, Asyle. 1972. Ueber die soziale Situation psychiatrischer Patienten und anderer Insaaen. "Original: Asylums. Essays on the social situation of mental patients and othe inmates (1961)" Frankfurt.
- Sieger, Heidi. "Evangelische Berufsfachschule fuer Altenpflege". Samariter Stiftung. 1999. Jahresbericht.
- Samariter Stiftung. 2000. Samariter Stiftung. Anmerbuch, Altenpflegeheim.
- Samariter Stiftung. 2000. Altenzentrum "Haus im Park" Dettenhausen, Zahlen, Daten, Konzeption.
- Samariter Stiftung. 2000. Samariter Stiftung, Haus am Oesterberg.
- Samariter Stiftung. 2000. Samariter Stiftung, Wir helfen Menschen.